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빅딜'... 혈세·경영권 등 고비 산적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LCC 3사도 단계적 통합 전망

일각선 과도한 혈세투입 목소리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 진행형  
코로나19 사태 등 변수 상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항공업계 '빅딜' 성사가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아직 최종 인수는 물론, 두 회사의 결합 시너지가 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예측이다.

◆ '대한+아시아나', 전 세계 10위권 글로벌 항공사 탄생하나?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함한 아시아나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000억원은 제3차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참여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한진칼도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한진칼은 7317억원을 투입하



1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이 서있다. /연합뉴스

고, 주식 취득 시 대한항공의 지분율 29.2%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신주 1조 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분율 63.9%를 보유하며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한진칼과 대한항공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인수를 결의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이전이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8000억원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투자 직후 전액을 대한항공에 대여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자금으로 대한항공은 아시

아나의 영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에 대한 계약금 3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일단 연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양대 항공사의 '빅딜'이 이뤄짐에 따라, 국내 LCC 시장에도 구조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3사의 단계적 통합으로 국내 LCC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하게 될 통합국적 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10위 수준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에어, 아시아나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 '시너지효과'는 아직 먼 길... 혈세·경영권 다툼·독과점 등 난관 수도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실적 기준 대한항공이 19위, 아시아나가 29위로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으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최종 딜 성사와 함께, 양사 인수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나가지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업계 중론이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는 과도한 혈세 투입,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권 다툼 개입, 독과점 관련 기업 결합 승인 심사 등이 꼽힌다. 아시아나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조5400억원을 지원받았고, 대한항공도 지난 4월 1조2000억원을 긴급 지원받은 바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로 산은의 지원이 잇따르게 되자, 양사에 공적 자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툰 온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주주연합간 분쟁에 자연스럽게 정부가 개입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최종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 각

국에서도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아시아나를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결합을 승인할 경우, 정부가 회생 불가능한 회사를 살리고자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사채출연도 없이, 오직 국민의 혈세만을 이용해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 및 아시아나 항공까지 인수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주주 전체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고, 실권이 생기면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 인수가 이뤄진다고 해도,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려 대한항공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한항공도 그나마 화물 부문의 호조세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 줄며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황마저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자본잠식에 빠진 아시아나까지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폐합할 경우, 업무가 중복되는 유휴 인력과 기체의 감축 등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SK이노, ESG 경영 글로벌서 인정받아

(환경·사회·지배구조)

4년 연속 'DJSI 월드기업' 선정  
국내 상장 기업중 사회 부문 1위



SK이노베이션이 '그린벨런스 2030' 등 ESG 경영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 결과 4년 연속 'DJSI 월드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DJSI는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 기관인 미국 S&P다우존스와 지속가능경영평가 전문 기관인 스위스 로베코셈이 매년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종합 평가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로, 평가대상 기업 중 상위 10%만이 DJSI 월드기업으로 선정된다.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SK이노베이

션은 DJSI 월드와 DJSI 아시아 퍼시픽, DJSI 코리아 지수에 4년 연속 모두 편입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도 종합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사회 부문(S)에서 국내 상장기업 740여 개 중 1위를 기록하며 국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적극적인 ESG 경영을 인정받았다.

최근 기후변화 및 폐플라스틱 이슈 등으로 인해 기업의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비전인 '그린벨런스

2030'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기존 사업의 환경 부정 영향을 축소하고, 친환경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환경 마이너스 가치를 상쇄하는 '그린벨런스 2030'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환경부정영향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은 지난달 진행된 '2020 CEO 세미나'에서 "앞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을 ESG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ESG 실행 결과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투명하게 공시하고,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등 주요 이니셔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지 기자

## KT, 끊임없는 '양자암호 기술' 최초 개발

KT는 끊임없이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양자 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자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은 양자가 전달되는 채널을 이중화된 구조로 만들어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시도가 인지되는 즉시 기존 회선 대신 백업 회선에서 새로운 양자키를 만들어 공급하는 양자암호 통신 기술이다.

기존 양자암호 통신 네트워크는 단일 양자 채널 구조로 회선에 문제가 감지되면 양자키 탈취 등을 우려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식이다. 이 경우 회선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양자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을 이용하면 양자암호를 활용한 상용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KT는 양자 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이 지난 7월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T) '연구그룹13(SG13)' 국제 회의에서 KT가 제안해 9월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Y.3804)' 표준을 기술로 구현한 사례라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LG전자, 블프 앞두고 TV생산 '풀가동'

멕시코 공장 생산량 30% 늘려 가동

LG전자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현지 생산 라인 가동에 박차를 가한다. LG전자는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 지역 TV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으로 이어지는 연말 성수기를 대비한 조치다. 현지 TV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레이노사 공장 TV 생산량을 전년 대비 30% 이상 늘려 가동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달여 빠른 7월부터 주간과 야간 2부제 생산 체제를 도입했다.

LG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북미 시장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현지 유통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OLED TV를 생산 중인 레이노사 공장. /LG전자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형 올레드 TV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4분기 북미 시장에서 OLED TV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날 것 전망이다. 4분기 OLED TV 글로벌 출하량도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용 기자

##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해외 싹쓸이 시동

삼성전자 해외서 100만대 판매 돌파

삼성전자가 식기세척기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월 2주차까지 글로벌 시장 식기 세척기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품력을 기반으로 시장별로 최적화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고압의 물살을 뿜

어내는 바가 물을 윗쪽으로 반사시켜 구석구석 세척해주는 '리니어 워시' ▲맨 아래 단에 놓인 식기까지 잘 세척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물살을 쏘아주는 '존부스터' ▲기름기가 많이 묻은 식기를 애벌 세척없이 강력하게 닦아 주는 회전 물살 '스톱 워시' ▲자동문열림 기능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현지 시장 조사업체인 JD파워가 발표한 '2020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삼성 식기세척기가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삼성전자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유럽에서는 현지 시장점유율 1위인 냉장고와 함께 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주방 가전이 패키지로 판매되는 비중이 늘면서 식기세척기 판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재용 기자